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세 부류의 사람들

(요 6:6-9)

이종윤 원로목사

벧새다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던 무리들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을 공급받았지만 육신을 가진 자들인지라 배가 고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만나를 내려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 지식의 오용자 빌립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 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7절)

빌립은 벧새다 사람으로 가까운 동네의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빌립이 자기가 아는 지식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백 데나리온이 있다 해도 떡을 살만한 액수가 안되고 살 곳도 없습니다.” 단번에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1) 지식의 교만

빌립이 실패한 원인은 지식의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지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될 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가져야 할 지식이 있고 버려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좋기는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얕은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잘못된 지식은 무가치할 뿐 아니라 아예 없는 것만 못합니다.

아담의 지식도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뱀의 잘못된 지식을 받아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인류를 죽음의 죄로 몰아갔습니다. 빌립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지식을 나타내려 했지만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무식이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 앞에서 서툰 지식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2) 돈의 힘에 의지

빌립의 또 한 가지의 실패의 원인은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이 아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식과 돈은 주님의 손에 바쳐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돈은 가끔 우리의 비전을 제한시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약속과 기적을 다 믿으면서도 문제에 부딪히면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근심부터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빌립의 실패 요인이었습니다.

2. 주님께 인도된 어린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9절)

성경은 한 아이의 가정이나 배경이나 신앙이나

현신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리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난한 가정의 아이라는 것을 추측할 뿐입니다. 이 어린이는 아무에게도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가치하고 무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바쳐졌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적다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3. 교량 역할을 했던 안드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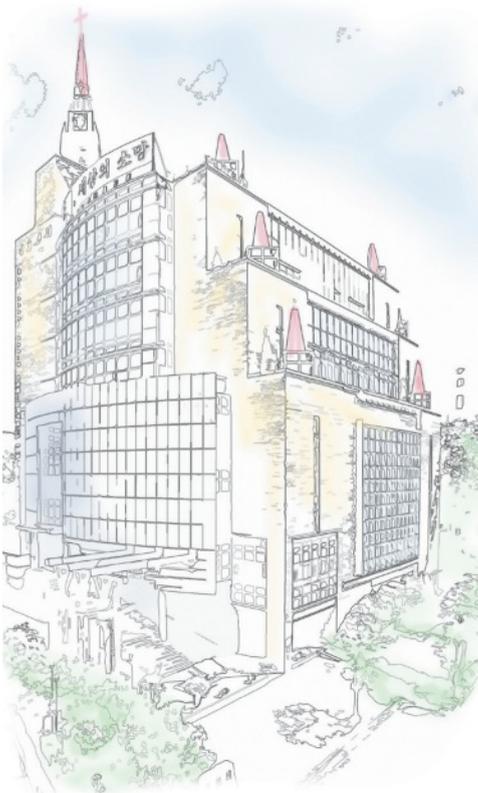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9절)

빌립에 이어 안드레까지도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빌립과 달리 안드레는 무리 가운데 어린아이를 찾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우리도 은사가 없다고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필요한 것 중 내가 바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나올 용기가 없었지만 안드레는 이 아이의 손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의 체험을 했지만 바나바가 키워주지 않았다면 위대한 사도로 거듭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안드레가 아니었으면 주님의 수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키워서 14년 후에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사를 알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안드레가 필요하고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이 민족 앞에 안드레와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제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나 기회나 달란트가 적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 계집종을 통해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하셨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로 하여금 엘리사 선지자의 목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예로 전락한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애굽 백성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줄 알고 온전히 바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대법원 박노철 목사 출교 관련 가처분 재항고 기각 - 심리불속행 처리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5월 19일(화), 총회재판국이 박노철 목사의 교회 통장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 세무서 고유번호증 상의 대표자 변경, 외부 용역동원과 폭력행사, 장로 불법입직 등을 권징사유로 삼아 정직 6개월과 출교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박노철 목사가 제기한 효력 정지가처분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2020년 9월 28일(월) 박노철 목사가 제기한 항고가 이유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박노철 목사는 또다시 이에 불복하

며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이견에 대하여 아예 심리를 속행할 필요조차 없다며 지난 2021년 1월 8일(금) 이를 기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비록 시간은 좀 더 소요되었지만 오히려 이로써 박노철 목사의 불법이 대법원에서까지 최종 명확하게 확인되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있을 박노철 목사가 제기한 위 출교판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도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심리불속행이란? :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결정문만 재항고인에게 송달된다.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신간 안내 -

윌리엄 커닝햄 William Cunningham의 "역사신학"

현재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담당하고 있는 서창원 목사(총신대신대원, 한국개혁신학연구소 연구원장)가 번역한 <역사신학> 마지막권인 제4권이 출간되어 완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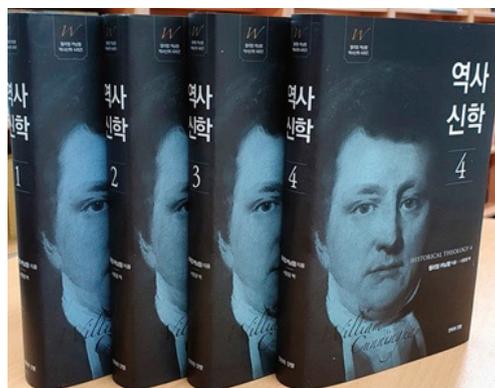
이번에 완간된 <역사신학>은 2017년 제1권이 출간된 이후 꾸준한 번역과정을 거쳐 윌리엄 커닝햄(William Cunningham, 1805~1861)의 <역사신학> 전 4권이 완역된 것이다. <역사신학>은 19세기 가장 뛰어난 칼빈주의 학자요 수호자였던 윌리엄 커닝햄의 불후의 명작이며 총 1,946쪽 분량으로 양적으로도 대작이다. <역사신학>은 윌리엄 커닝햄의 교회사 강의를 엮은 것으로 초판이 출간된 이래 영미권에서는 역사적 정통신학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필독서로 읽혔으며 칼빈의 <기독교 강요> 다음으로 읽어야 하는 저작으로 알려져 왔다.

윌리엄 커닝햄은 1843년 스코틀랜드 교회분열 때 스코틀랜드 교회를 떠나 토마스 찰머스와 로버트 스미스 캔 드리쉬와 함께 자유 교회의 창립자 중 한 사람이었다.

윌리엄 가든 블레이크는 윌리엄 커닝햄을 "칼빈주의의 가장 위대한 수호자였으며 온화한 인격과는 달리 신학적 논쟁에 있어서는 담대함과 격렬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제1권은 사도시대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헌법과 삼위일체 교리 형성과정, 그리스도의 인격을 다루고 있다.

제2권은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의 과정,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 낸 성인들과 우상숭배 문제, 국가와 교회의 권세에 대한 이해 등을 집중



적으로 조명해 주고 있다.

제3권은 종교개혁자들이 남긴 중요한 신학 사상인 칭의론의 실체와 성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다뤘다.

제4권은 3권에 이은 속죄론 논쟁의 결말, 17세기 알미니안 논쟁의 실체, 교회 정치가 장로회 주의여야 하는 이유, 국가만능주의의 병폐, 교회의 영적 독립성 등을 다루었다.

서창원 목사는 기독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책은 신학적 이슈에 대한 판사의 명판결과 같은 명쾌한 해설서"라면서 "개혁주의 신학계에 끼친 영향은 책의 발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또한 "신학 부재 현실이 농후한 목회 현장에서 성경적인 바른 신학의 바탕을 세워주는 저서"라면서 "주님의 공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고자 하는 주의 종들과 신학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이 읽는다면 이전까지와는 다른 탁월한 안목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현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권용평)

기사 정정

순례자 1507호(1월 3일자)에 실린 "2020 성경통독자" 명단 중 7독 (11교구) 김석봉을 **17독 (11교구) 김석봉**으로 정정한다.

연 말 정 산

연말정산 자료를 원하는 성도들은 seoulch@hanmail.net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성명 / ② 주민번호 / ③ 전화번호
- ④ 주소 / ⑤ 가족합산여부

연말정산 자료는 파일로 수신 이메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

(담당: 송미라 권사)

* 제공된 개인 정보는 연말정산 후 삭제합니다.

교회설립 30주년 기념 순례자 추회

내 사랑 서울교회 사진 콘테스트

순례자는 교회설립 30주년을 맞아 전교인을 대상으로 "내 사랑 서울교회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1. 대상 : 서울교회 모든 성도
2. 기간 : 1월 10일(주)-12월 26일(주)
3. 마감 및 심사 : 10월 31일(주)
4. 결과발표 : 11월 7일(주) 순례자를 통해
5. 전시 : 11월 7일(주)-12월 26일(주)
6. 시상 : 대상 1명
사랑상·소망상·믿음상 각 1명
장려상 (참여인원에 맞게 변동)
7. 응모내용
 - ① 서울교회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혹은 교회 새벽 풍경, 야경 등 다양한 교회 사진
 - ②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서울교회입니다. 교회내·외 행사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습 혹은 비대면에배로 인해 인터넷에배에 참석한 성도들 모습 등
8. 응모방법 :
 - ① 흑백, 컬러 모두 가능
 - ② 3000x2000 픽셀 이상의 jpg파일
 - ③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 ④ 카톡으로 전송 시 사진 화질 선정을 반드시 원본이나 고화질로 전송
 - ⑤ 사진에 날짜 표기가 없어야 함
 - ⑥ 제출시 반드시 사진 제목과 참가자 이름, 직분 표기
9. 제출된 사진들은 교회 행사나 순례자 편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10. 제출 : 유은경 집사 yoolulu@hanmail.net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들과 공감하고 함께 호흡하는 교역자가 되겠습니다



안용곤 전도사 (청년부 담당)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 43:18-19)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와 청년부를 섬기게 된 안용곤 전도사입니다.
저는 국립 한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법무법인 화우 총무실에서 10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그 후 청년사역에 대한 비전과 부르심을 받아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에서 신학과(M.div)를 전공했습니

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교육전도사 사역과 신성교회 청년부 사역을 거쳐 서울교회 청년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는 사랑하는 아내 고영미 사모와 딸 서은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부르심은 청년들과 공감하며 함께 호흡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섬기며 돕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히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을 향한 관심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교역자가 되겠습니다



양하림 전도사
중·고등부 담당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3일을 시작으로 서울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지도하게 된 양하림 전도사입니다. 서울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쓰임 받게 되어 주님께 감사하고 서울교회 성도분들께 감사

합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두 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부친께서는 담십리 소재 신담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며 동생은 총회연금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타인을 배려

하며 온정을 베풀고, 주일성수를 지켜 믿음을 키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혼란과 유혹이 가득했습니다. 학우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외면하였으며 선생님들은 성공과 승리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이 시기를 담대히 이겨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지혜로우신 부모님과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의 관심과 사랑과 지도를 통해 저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특히 대학교를 다니면서 묵상하게 된, 하나님을 떠나 누리는 성공과 영광이 잠에서 깨어나면 허망한 꿈과 같다는 시편 73편 말씀은 큰 위로와 평안을 주었고, 그중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저를 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위로를 주는 목회자가 되고자 합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손길을 건네는 목회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위로와 평안,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선포하고 전도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소년 시절이 관심과 사랑과 공감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잘 알기에 청소년들을 향한 관심과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비전이며 다짐입니다.



2021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일반부 본선
10월 30일(토) 오후 2:00
- 교회학교 본선
10월 31일(주)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31일 찬양예배 시에 암송
- 암송범위
요한계시록 1~5장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새해의 소망



정병무 은퇴장로
(12교구)

'말씀순종'은 우리 믿는 자들의 입에 붙은 상투어로 누구나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나 자신은 그 말씀순종에 충성하고 있는지 깊은 묵상에 잠겨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작은 손바닥으로 가린 삶이 얼마인지 먼저 반문해 봅니다. 알게 모르게 인간의 정욕에 따라 아부하고 아첨하며 살아왔음을 부인할 수 있는 자가 우리 중에 얼마나 될까요! 아첨과 존경은 본질이 다릅니다. 존경은 당연한 도리를 행하는 것이고 아첨은 욕구충족의 목적의식에서 행하는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재 창립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1991년 창립 후 올해로 30주년을 맞게 되었으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민족과 같은 처지에 놓였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써서는 안 되기에 각오와 다짐에 합당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언의 카리스마에 끌려가서도 안 되며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 순종은 맹종을 낳고, 맹종은 돌이킬 수 없는 허점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며 그 허점은 궁극적으로 마귀의 먹잇감을 만들어 주게 되는 어리석음으로 종말을 보게 합니다.

이러한 병폐의 방부제는 넓은 의미로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간에 성숙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성령 안에서 진실된 사랑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주는 사랑이 받는 사랑을 선도해야 합니다. 그 기초가 소통이며 소통의 기초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아닌 다정한 인사라고 생각해 봅니다. 소통은 자신이 가까이하고 싶은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자에게 가까이하고 싶은 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목자의 품에서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한층 더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이룩하게 하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미래의 서울교회는 바른 신앙 위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축원 드립니다.

인간의 우상,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자존감의 우상, 기복의 우상, 신앙적 우상, 독선의 우상, 아시아비의 우상 등은 우리 각자의 가슴속에 웅크리고 있는 잠재의식이며 이를 절제하려면 자비와 양선에서 신행일치의 삶으로 경주해야 할 것이지만 때때로 아집에 매여 끌려가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은 절대 금물이고 사람 앞에 거만 또한 금물인 것을 알지만 우리는 알고 모르는 사이에 이를 범

하고 있습니다. 교우들 간에도 내가 먼저 찾아가 인사할 생각은 없고 상대가 나에게 다가와 인사하기를 기다리는 자고의식부터가 그 현실적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거듭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 교회가 재 창립을 목표로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원초적인 필수조건이 실천적 사랑으로 쌓아가야 할 것이며 그 행동 강령으로 정감어린 인사하기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적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서없이 부족한 종이 소견을 몇 자 올려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크신 해람을 바라며 우리 다 함께 재창립의 서울교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되어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축원 드립니다.

등 정

- 학위취득: 이동우 성도 (11교구 이경희2권사 장남) 건국대 경영공학 박사
- 고시 합격: 이태옥 성도 (11교구 이경희2권사 차남) 건축 기술사 고시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1월18일	월	창 41:37-43:34		출 33-38	
1월19일	화	창 44-46		출 39-40, 레 1:1-5:13	
1월20일	수	창 47-50		레 5:14-10:20	
1월21일	목	출 1-3		레 11-15	
1월22일	금	출 4-6		레 16-22	
1월23일	토	출 7-9		레 23-27	
1월24일	주일	출 10-12		민 1-3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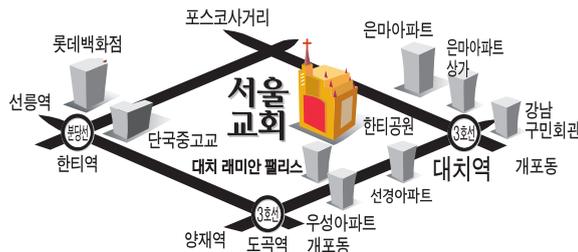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면전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2. 교회설립30주년을 바라보며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옵소서.
3.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져 나라와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